

(...2 페이지에 이어)
 어지시 않을 정도죠. 지금 생각해도 놀라워요. 웨스트 윈드 화장터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고, 시체와 동고동락하면서 죽음을 대하는 저의 자세가 정말 달라졌어요."

-시체에게 무엇을 배웠지요?

"예전엔 몰랐던 감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망설임 없이 공장 울거나 웃기 시작했죠. 매일 죽음을 되새기다 보면 날마다 색채의 그림자가 드리우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 원수 같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여행을 더 하고 사랑에 빠지고 싶을 겁니다."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죽음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쓴 에네스트 베커에게 배웠어요. 우리는 글을 쓰고, 예술작품을 창조하고, 건물을 짓고, 아이를 갖고, 일의 의미를 찾아요. 이 유는 한가지예요.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니까요.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이 심장을 꺾어 놓아야 오늘이 더 절실해져요. 우리는 다 죽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린과 매슈를 화장했을 때였어요. 모린이 먼저 죽고 아파트에 찾아가 그 재를 남편 매슈에게 건네주었죠. 휠체어를 타던 50대 남자 매슈는 고맙다며 유골함을 가만히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화장터로 매슈의 시체가 왔어요. 아내의 재와 태워달라는 당부와 함께."

저는 그들의 육체가 섞여 하나의 먼지가 되는 걸 지켜봤어요.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두 사람의 삶과 죽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목격했다는 게 감격스러웠어요. 장의사라면 일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통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마음에 격동이 자주 일어나나요?

"가령, 자녀가 있는 장의사라면 어린아이의 몸을 장례 절차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죠. 화장장의 디렉터인 마이크의 부탁으로(그는 아기 아빠였다), 11개월 된 아기의 시체에서 머리카락을 대신 잘라준 적이 있어요. 아이의 부모가 그걸 갖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제 경우엔 비슷한 나이의 고인이 마약 남용으로 사망한 시체를 볼 때 많이 힘들어요. '내 삶이 다른 방향으

로 흘렀다면 내가 저렇게 되었을 수 있겠구나' 싶죠.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린 청년을 거둘 때는 오히려 부모들이 침착해서("이미 오래전 가슴에 묻었어요."), 시체 처리 비용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매장이나 화장 전에 시체를 메이크업해서 유족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있더군요. 당신은 그 절차를 우리를 진짜 죽음에서 분리하는 '부자연스러운 쇼'라고 비판했지요. 망자를 '애완 인형'으로 만든다고요.

"맞아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죽은 사람의 얼굴은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입은 몽크의 '절구'에 나오는 것처럼 벌어져 있어요. 당신과 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죽음의 진짜 얼굴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보고 싶어 하는 이미지는 아니죠."

장의업체는 가족들에게 500달러를 청구해서 그 대가로 시신들은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쉬는 것처럼 보이죠. 고인이 된 할머니의 몸은 쥐어짜여서 동유럽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지만, 흑여중간에 실수로 눈이 뜨일 수도, 램프로 썩 팔이 갑자기 빠질 수도 있어요."

-한국에선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엄습' 문화가 있지요. 가족이 원하면 수의를 입히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럽지요! 사실 제가 미국의 죽음 산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방부처리의 문제. 부패를 막기 위해 포름알데히드와 같이 독성 강한 물질을 시체에 주입하는데, 그 작업은 방부처리사에게도 위험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아요. 둘째, 메이크업한 시체는 유족이 보기에만 좋을 뿐, 만질 수도 없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대상물이 돼요."

저는 유족들이 고인의 몸을 단장하는 과정에 참여해 보길 권합니다. 고인의 몸을 함께 준비하고 조문객을 맞이하면, 죽음이 삶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장의 산업은 장벽을 높여 쌓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족들을 한 없이 무능하게 격리해요. 시체와 분리되는 게, 최선의 애도는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는 애도란 이렇다. '시체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떠났으며 이제 더는 삶이라는 경기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아님을 안다. 시체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도 언젠가 죽을 것임을 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스스로 알아차림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당신은 시카고대학교, 웨스트윈드 화장장, 장의 학교에서 죽음을 배우고 만났습니다. 삶이 온통 '죽음의 소명'을 향해 달려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죽음을 볼수록 삶의 의지에 불타오른다는 게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세 곳에서 열정적으로 배우고 경험했어요. 가장 큰 자산은 이론과 실제의 결합입니다. 저는 대학 문헌에서 중세 마녀재판의 화형식을 연구했고, 화장장을 찾아가서 시체들과 부대껴요. 머릿속의 지식과 제 손의 경험이 만나니 비로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대개 학자들은 논문을 쓰고,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일하죠. 이 둘 사이에는 전혀 접점이 없어요. 반면 저는 미국 장의 산업의 역사를 알고, 동시에 시신을 화장장에 직접 넣고 유족들과 만나 그들의 애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기에, 관련 이슈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케이틀린은 '죽음을 감출수록 산 사람이 잘 죽는 데 방해만 될 뿐'이라고 했다.

-죽음의 풍경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리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잃는 것은 죽음에 대한 현실감입니다. 숨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시신을 마주한 경험 없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현대의 모든 문화는 우리를 실체로서의 몸에서 떼어놓으려 하죠."

IT 기술, 인공지능, 가상 현실을 보세요. 모두 육체 없는 세계로의 환상적인 모험이지요. 저는 생명이 빠져나간 시체에 대한 감각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현실 세계로 끌어당겨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는 이런 살얼어리를 입고 걸어 다니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제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체에게 배워요."

매일 아침,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건 중요해요. 인류가 수천 년 이어온 장례 전통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신을 다루던 자연적인 방식이 변할수록 우리는 중요한 생의 감각을 잃어버릴 거예요."

-시체 트럭을 운전하고 하루에도 수십 구씩 여러 방식으로 시신을 다루았으니, 당신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겠군요.

"아니요. 저도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과연 합당한 목표일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투쟁하거나 도피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차도로 뛰어 들 거예요. 다만 지금 저는 죽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조차 차분히 그 상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코로나로 올 상반기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처리되지 못한 시체가 냉동고에 쌓이는 모습을 봤어요. 장의사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겪어내고 있습니까?

"한때 LA도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도 코로나로 사망한 이들의 시신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직 감당하기 힘든 수준은 아닙니다. LA의 코로나 치명률은 뉴욕에 비하면 낮아요. 하지만 뉴욕 시민과 그곳 장례업 동료들에게는 두려운 상황이죠."

화장하지 못한 시신이 쌓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임시 매장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응급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역병이 돌 때는 시신이 길바닥에 나뒹굴며 아수라장이 됐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엔 적절한 방법으로 화장 또는 매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가끔은 가족의 죽음도 상상하겠지요?

"물론이죠.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하와이에 있는 부모님이 죽을 수도, 장례식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망자의 시신을 돌보라고 말해왔던 사람으로, 그 가능성은 정말 끔찍했어요. 저는 불안에서 빠져 나와 그 두려움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장례에 함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시나리오를 결말까지 꼭 그려보면 최

악의 상황조차 막연한 상상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의외의 대응 방안이 떠오르기도 하죠. 죽음을 부정하고 생각조차 피하면 그 불안에서 영영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반대로 나도 가까운 이도 죽는다는 걸 긍정하고 인정하면, 괜찮아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현실에서 평범한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시체를 어떻게 대면해야 합니까?

"무작정 시체안치소에 들어가면, 다들 끔찍하겠죠.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 남편 혹은 자녀의 시신 곁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평생 사랑해온 가족이잖아요. 엄마는 어린 시절의 당신을 돌봤어요. 풍오조를 닦아주고 깨끗하게 목욕 시켜 주셨죠.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번엔 당신이 엄마를 닦아주고 씻어 줄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오래 간병해왔다면 그 돌봄을 마지막 과정에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씻기고 닦아주던 아이라면 아이가 죽은 뒤에도 돌봐주고 싶지 않을까요? 영혼이 떠난 집이지만, 사랑했던 이가 머물던 몸이니까요. 이 경험은 우리가 이승과 저승을 좀 더 주도적으로 겪어낼 힘을 줘요. 실제로 많은 경험자가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겪죠. 슬픔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지만, 놀랍게도 그 현장에 직접 참여했던 것이 슬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을 통해 내가 시체가 된 모습을 상상해보며 잠시나마 죽음의 공포를 잊었어요. 스스로 하찮아지는 즐거움이랄까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는 보통 사람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유한함에 대해 생각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

▲ 케이틀린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시체를 보살피라고 권유한다. 조상들이 했듯이 고인을 씻겨보면서 자신의 공포를 통제하라고.

습니다. 다들 '그래도 된다'는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에 있는 문화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건 건강하지 않다거나, 재수가 없다고 멀리하죠. 하지만 죽음에 관한 생각과 두려움은 본능이고 통제할 수 없어요."

차라리 터놓고 그 공포를 공유하고, 죽는 과정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죽으면 '자연매장'을 할 거예요. 자연 분해되는 수의를 입고 땅과 한 몸이 되는 죽음이죠. 가까운 가족, 친구와는 더 진지하게 대화하세요. 어차피 우리의 잠재의식은 끝없이 그 생각을 합니다. 혼자 조용히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줍시다."

책에서 나는 바이런으로 시작해서 마티네즈, 후안, 클리프, 매슈, 애덤스 부인, 엘레나 할머니 등 수많은 시신의 처리 과정과 유족들의 애도 풍경을 보았다. 특별히 중국인 황 씨 할아버지의 화장장 참관 광경을 잊을 수 없다. 아버지의 몸이 화장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아들은 힘차게 점화 버튼을 눌렀다.

무표정한 장례식장 직원이 아니라 사랑했던 아들이 고인을 세상 밖으로 떠나보내는 버튼을 누른 것이다. 세상에 올 때 자신의 탯줄을 가위로 잘라주었던 아버지를 위해.

케이틀린 도티는 그 순간, 아버지의 화장을 생각한다. 화장구 문이 철커딩 올라가고 그 소리의 반향이 방에 가득 찰 때, 자신이 살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름다운 불길'이 되는 것을 지켜보겠노라고.

당신에 대한 아름다운 추모는 현재의 삶만큼 중요합니다.

Pre-planning으로, 당신의 뜻 대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는 재정적 준비뿐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입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를 Eden Brook과 함께 Eden Brook은 최근 캘거리 한인회와 Arbor Alliances Program을 통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저희 전문 카운슬러들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Corinne Wiebe T. 403-973-9051

Eden Brook Memorial Gardens & Funeral Home
by Arbor Memorial

17th Ave SW & Lower Springbank Rd, Calgary
T. 403-217-3700 www.edenbrookcemetery.ca



▲레토르트에서 작업 중인 케이틀린 도티.